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21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정순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룻기4:13-22	인 도 자
설 교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34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정순영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9월 9일 제58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룻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4절에 나오고 있는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합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야 하는 가정에 찬송이 울러 퍼지게 합니다.

룻기 4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천한 인생들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진 축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모압 여인 룻만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인생도 행복하게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보아스만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는 손자를 품에 안고 감격했습니다. 나오미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본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찬송이 넘쳐납니다. 내가 누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 4:18-22절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족보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베레스의 족보의 끝은 다윗입니다. 결국 룻기는 비천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불리우는 다윗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룻기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를 뺀 3명의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들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을 나게 하셨고 심지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을 역전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룻기 4장 12절을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업을 잇고자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다말입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여인이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룻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모압의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룻의 인생은 이삭을 주우며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상처 많은 여인 룻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보아스가 아니고서는 이방여인 룻의 상처를 가장 잘 치유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상처를 치유하고 잘 돌보아 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방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여인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영광의 별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룻기의 주인공입니까?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룻기의 주인공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 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생의 마지막은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직 낙심하고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좋은 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최후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10월부터 새벽기도회와 가정교회(속회)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방이 필요하게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가정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산경로대학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경로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5.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643.00	
감사헌금:	$350.00	
주일헌금:	$50.00	
특별헌금:	$0.00	**합 계: $1,043.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